

##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글로벌 협력체제의 강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정일 목포대 교수

### 1) 머리말

‘COVID-19’의 팬데믹 상황의 도래로 인하여, 워라벨 중심의 일과 삶 관계에 대한 관점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높은 전염율의 질병창궐로 인하여,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이었던 ‘사무공간 및 업무시간 내 물리적 대면방식’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과 삶 간의 균형’(Work-Life Balance) 혹은 소위 ‘워라벨’(WLB) 중심의 사회에서 ‘일과 삶 통합’(WLI, Work-Life Integration) 중심의 사회로의 크나큰 변화가 수행되는 등 사회 곳곳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변화들이 감지되어지고 있다. ‘재택근무’나 ‘비대면 원격업무’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일과 삶이 경계선을 두고 서로 분리되어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유효성이 도전받는 시기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통제의 측면과 통제받지 않으려는 측면의 양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는 측면과 마스크를 씌워 통제를 강화하려는 측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건물마다 보안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각 개인의 건물 출입의 기록이 체크되는 새로운 시기로 진입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Zoom을 통한 전세계의 화상 회의 및 화상수업이 강화되면서 한 개인의 회의참여시간, 출퇴근 시간, 수업참여시간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시점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란 의미는 코로나 19가 언컨택트 트렌드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임을 의미하며,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코로나 이전시대와 코로나이후 시대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글로벌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논컨택트

(Non-Contact), 콘택트리스(Contactless), 언컨택트 시대(the age of Uncontact), 컨택트리스 사회(Contactless Society), 언택트(Untact),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등의 유행어는 이러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언컨택트 트렌드의 대유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3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바꿀 세계의 질서(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라는 칼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면서 이 질환이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World Order'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활용하여 NWO(New World Order)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NWO(New World Order)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발생하여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이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시작했으며, 대면접촉 서비스의 불황,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 및 그 영향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산업구조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non-normal이 뉴노멀로 자리잡아가는 시대에 무너지가는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그 당위성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뉴노멀이 뉴노멀로 자리잡아가는 트렌드 속에서 글로벌 팬데믹 감염으로 인하여 글로벌 통제를 위한 국가간 협력 또는 초국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국가간의 자국 통제 내지 대외 통제의 수준에서 국가간 통제협력 및 초국가간 방역통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될 시기로 접어들어간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및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이론에 기초하여 초국가적 팬데믹 유행에 대항하여 초국가적 연대 협력을 강화되면서 초국가적인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형성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추정하게 될 것이다.

## 2) 위협의 정의와 위협사회

현대사회의 주요 위험의 특징은 그것이 자연재해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발전소나 송전탑이든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든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과 제도에 의해 매개되어 발생한다. 그렇게 때문에 위험은 그것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사회제도의 문제이자 현대사회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가 된다. 올리히 백은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의 성격을 설명해온 대표적인 학자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국가내의 위험을 언급하지않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오염과 위기만을 ‘글로벌 위험’으로 간주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미 초국가적 오염을 논한 이전 발표에서 일본 후쿠시마의 핵물질의 유출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바이러스연구소의 독성바이러스의 유출 등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글로벌 팬데믹 등을 글로벌 위험으로 제한하여 서술하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위험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그간 위험이 무엇인지 위험사회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세계는 이미 초국가적 위험상태에 돌입하였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한상진·올리히 백(2008)은 2008년3월29일에 서울대에서 공개강연을 한 바 있는 데,이 내용은 한상진과 올리히 백의 대담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한상진·올리히 백(2008:154)는 다음과 같이 미래에 등장할 시민사회 형태의 코스모폴리탄 국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나는 《세계화시대의 권력과 반권력》에서 세계화의 효과를 서로 다른 행위자의 결합으로 형성된 글로벌 권력게임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정치투쟁이지만 동시에 권력의 전략과정이기도 하다.정치지형에서 지배적인 것은 세계자본과 국민국가의 세력연합이다.이것은 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인 연합을 뜻한다.이들은 모든 것은 다 변해야 하지만 세계자본은 변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한다.이에 맞서 시민사회운동과 국가,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연결에 의해 시민사회 형식의 코스모폴리탄 국가(Cosmopolitan state in civil civil society form)이 등장한다.”

김영란(2019:53~54)은 올리히 백의 후기산업사회 위험의 특징을 도표화하였는데, 이중 글로벌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도표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박희제(2014:84):<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올리히 백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제30집), 84쪽.

특징	내용
일상적인 위험인식	생명의 원천이 위험의 원천으로 변화됨.문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즉 방사능,유해성분,장애에 대한 위협 등의 실제 내용에 대한 논평
위험의 탈지역화	위험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지리적 장소나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곳에 편재함.미래에 초래될 위험의 결과는 확실히 측정되고 제한될 수 없음
환경적위험의 갈등	물리적 위험을 내포하는 환경위험의 경우 오존층 파괴나 온실효과처럼 풍요에 의해 야기된 환경파괴가 존재함
지구적 금융위험	금융위험은 사회적 격변과 정치적 위협으로 변화함.전지구적인 시장위험의 사회적,정치적 폭발성이 명백해짐.
새로운 위험의 전통적 경계소멸	새로운 유형의 위험은 크게 생태적 갈등,경제위기,테러네트워크형성을 포괄함

한상진·올리히 백(2008:150)은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험의 유형은 다양하다.의료,환경,식품,실업 등 국민국가가 다루어야 할 위험들이 많다. 지구적인 위험과 국민국가 안의 위험을 범주적으로 구별하기는 힘들다.서로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한 보기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위험은 세계적인 문제이면서 각 국가가 대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글로벌 위험을 다루기 위해 한상진·올리히 백(2008:150)은 위험사회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많은 제도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럴 수록 증대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이런 경향이 급진화된 것이 바로 위험사회이다.여기서 위험사회 논의는 상당히 생산적이다.이것은 기존의 제도에 도전적이며 국가 내부 또는 국제적 수준에 증가하는 위험이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직시한다.”

또한 한상진·올리히 백(2008:148)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적 협력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후변화의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갈등하는 여러 시각들에 부딪친다.과거에는 힘에 의

해 다른 국가를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시각을 다 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구적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미국이나 영국 등 몇몇 국가에 의한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치적,도덕적으로 타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코스모폴리탄 정치의 특징이다”

### 3) 초국적 위험과 글로벌 위험사회

제어할 수 없는 글로벌 시스템 위험이 합법화되고 정상화됨으로써 어떤 정치적 역동성과 어떤 사회구조,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가? 글로벌 위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타자의 종말’이고, 우리의 모든 세련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험사회의 위험은 과학기술과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해 산업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역설적으로 위험사회는 근대의 실패가 아니라 근대의 급진화가 낳은 결과이다. 그런데 위험이 결정을 수반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회 제도의 정당성에 큰 위협이 된다. 올리히 백(2019:109)은 “위험은 온갖 모습으로 위장한 채 실제로 나타날 것이며,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적 위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는 위험의 폭발력이 이윤에 맞들인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망치고 중독시킬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조차 성찰적 근대화의 동력<sup>2)</sup>을 예증한다. 산업사회는 위해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의문시한다.”고 보았다.

올리히 백(2019:95)은 또한 “우리는 그것이 작동시키는 위험발생의 동력(동학)을 통해 위험사회가 군사동맹 및 경제블럭의 경계만큼이나 국민국가의 경계를 침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계급사회가 국민국가로 조직될 수 있다면 위험사회는 궁극적으로 국제연합(UN)내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위난공동체(risk society)’를 낳는다”고 보았다. 올리히 백(2019:114)“(기술과 과학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이와 연관된 위험이 언제나 무시되었으며 지금도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기술-과학적 호기심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생산성을 위한 유용성이며,그와 관련된 위해들은 단지 사후적으로 고려되거나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보면 과학과 기술이 글로벌사회에 위험을 극도로 위험화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물질 유출의 위험,바이러스 연구소의 바이러스 유출,과학 및 기술혁

---

2) 역자는 이를 ‘동학’이라 번역하였다.이는 동력 또는 역동성에 해당하는 말로 ‘동학’이란 생소한 개념이므로 ‘동력’이란 말로 대체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신이란 이름아래 반도체 공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는 백혈병 환자의 증가,송신소,풍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각종 발암 현상과 질병의 증가 등 이러한 논리는 얼마나 여러 가지 관련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전지구적 재앙으로 인하여 지구적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두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초경계적 오염의 발생국이 아닌 주변국들에 의해 초경계적 오염의 피해에 대한 국제연대는 강화될 것이며,이를 통하여 광범위한 초경계적 오염(대기,산성비, 질병,미세플라스틱,우주쓰레기,해양쓰레기,핵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초국가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인은 예측한 바 있다<sup>3)</sup>. 향후 이와 같은 초경계적 오염이 지속되면 될수록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NGO활동의 국제연대와 활동도 분야별,주제별로 더욱 강화되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목표)의 관련된 세부 목표들이 Action Plan을 통하여 지역적,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목시록의 기사가 말을 타고 전세계를 휩쓸며 역병과 굶주림이 사회안정을 파괴할 수 있다.또 거대한 난민과 이주의 물결이 국경을 뒤덮어 국가 주권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다.이와 같이 황량하고 혼란스런 세계에서는 어떤 문명도 어떤 세계 정책도 살아남을 수 없고,점점 작아지는 집단들이 오직 생존을 위해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sup>4)</sup>”

이것은 하랄트 뮐러의 부정적인 생태위기 시나리오이지만 그는 보랏빛 생태위기 극복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호운동은 이미 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환경보호운동은 비민주적인 국가에서도 시민 참여의 영역을 넓히는 추동력이다.비정부기구들과 환경오염으로 손상된 경제이 익, 환경보호 기술은 제공하는 모든 산업 영역,또 참여적인 관료들 간의 제휴 덕분에 오존 협정과 그 의정서,몇몇 해양보호협정이 성사되었다.비록 지금은 기후정책에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이 제휴가 미래의 동향이 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중략~모든 문명권에는 자연을 ‘신의 피조물’,‘성스러운 것의 체현’으로 이해하며 자연의 보존을 위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연관들이 있다.~중략~지구의 환경조건은 앞으로도 수십년간 악화될 것이며 지역적인 차원의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이 부정적인 사건이 국가와 문명의 경계를 초월

3) 정일 <성서적 생태론에 따른 초경계적 오염의 위기와 그 회복을 위한 전략>

4) 하랄트 뮐러(2002:282)

하는 협조를 가능케 할 에너지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sup>5)</sup>”

하랄트 뮐러는 그의 저서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에서 환경보호 관련 NGO의 역할이 초경계적 오염을 방지하는 초경계적 국제연대를 통하여 미래의 희망이 되는 청사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광우병 파동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유전자변형식품(GMO)과 석면 등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험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조아라, 강운재(2016: 94)]. 조아라-강운재(2016:95)는 위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위험을 어떻게 사회학자들이 접근하는 지를 분석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 연구(risk research)는 ‘객관적’ 위험의 존재와 그것을 “측정가능하고, 계산가능하고, 예측가능하다”는 신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험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가령, 루만 (Luhmann)은 위험문제를 사회소통의 효과로 보고, 절대적 거부대상 인 위난(danger)과 달리 위험이 사회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대상으로 치환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노진철,2009).또한 푸코(Foucault)의 논의는 위험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위험이란 신자유시대의 효과적 통치를 위해 고안되고 활용되는 개념이 자 창조물로 본다. 이런 통찰력은 위험거버넌스가 가져 오는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게 한다.”

과거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갤브레이스(Galbraith)의 통찰을 빌리지 않더라도 복잡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핵심 개념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조아라-강운재(2016:97)의 말에 긍정하며 그야말로 현대가 복잡성,불확실성, 미래 지속발전의 불투명성,미래 화폐경제의 불투명성 등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로 보여진다.

유발 하라리·재레드 다이아몬드 등(2019:28~41)은 “과학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21세기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로입니다.~중략~향후 수십년 안에 인류는 세가지 커다란 위기,바로 핵전쟁,지구온난화(기후변화),

---

5) 하랄트 뮐러(2002:282)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중략~전자구적 관점에서 보면 테러리즘보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번영이나 생존에 더욱 큰 위협입니다.”라고 보았다.현재적 상황으로 볼 때에 기후변화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큰 위협으로 보인다.

이종찬(2020:26~29)은 21세기의 시대를 VUCA나 RUPT시대로 정의한다. VUCA란 Volatile(변동성),Uncertain(불확실성),Complexity(복잡성),Ambiguity(모호성)을 합칭한 것이며,RUPT는 Rapid(신속한),Unpredictable(예측불가한),Paradoxical(역설적인),Tangled(엉켜있는)를 합칭한 말이다.그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 가져다 준 큰 변화를 뉴노멀의 탄생으로 보고 사람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로 언택트(Untact)사회의 도래를 급속하게 앞당겼다고 보았다.사람간의 접촉을 꺼리는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의 지속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며,이를 통하여 가상현실사회의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다.

박영숙·제롬 글렌(2020)의 《세계미래보고서》는 1988년 유엔의 새천년 미래예측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1996년 유엔산하 비정부기구로 창립된 밀레니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함께 쓴 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몇가지 주목될 만한 것들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만약에 2019년 12월에 전세계에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코로나19의 징후를 탐지해 WHO가 이끄는 국제비상팀이 즉시 우한으로 갔다면 지금의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그러나 WHO는 힘이 없고 국가들의 지원도 없었다~중략~이제 우리 모두는 인류 재앙에 관해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에 힘을 실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84~85쪽)

박영숙·제롬 글렌(2020:80)은 코로나19가상정상회담에서 미래학자인 제이미 메츨을 인용하였다 “우리가 결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중략~인류는 이제 새로운 행동을 위한 수직조직을 만들고 급속한 결정으로 행동강령을 내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박영숙·제롬 글렌(2020)의 이와 같은 말은 유엔이 추구하는 세계정부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지며,포스트코로나가 이와 같은 새로운 NWO시스템을 앞당겨주리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전세계에 전염병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테드로스 아드하놈 WHO사무총장이 중국측으로 편향되어 있어 코로나19의 징후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였을 리도 없고,또한 이러한 WHO 조사결과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말의 맥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구축해야 할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관심에 방점이 찍혀있을 뿐이다.

“위험사회의 설명모델에 코스모폴리탄 시각이 도입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자본시장의 불안정과 대규모의 허리케인, 쓰나미 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새로운 질병, 식품오염 등과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일국 중심의 국가주의적 접근으로 설명할 수 없다. 벡의 세계위험사회 개념은 기든스(Giddens, 1994:78)의 고단위 위험(high-consequence risks)과 함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전지구적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거대한 규모의 오염과 사막화 현상 뿐 아니라, 대규모의 전쟁, 전지구적 경제의 불안정, 전세계의 과잉인구, 대기, 물, 식품오염에서부터 의학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기술 전염병(techno-epidemics)들까지 모두 이 용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한상진(2008:63)

한상진의 이러한 말은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초국가적인 대응방안에는 세계시민주의의 시각이 필요함을 긍정한 것이다.

#### 4) NWO(New World Order)와 세계시민주의

각 국가나 민족이 자신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국가나 민족을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정부가 아니라 각 국가가 연합을 이루는 세계시민적 상태나 국제연맹이 바람직하다고 칸트는 보았다.[양해림(2014:425)의 칸트의 글 재인용.] 칸트(Immanuel Kant)가 『영구 평화론』(1795년)에서 주장한 세계시민적 조직에 관한 말은 다음과 같다.

“개별국가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이 자기 국가와 더불어 각 국가의 권리를보호할 수 있는 시민적 입헌조직과 유사한 입헌조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만민의 연합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2001년 9.11테러가 ‘고전적 국제법의 질서’를 새로운 ‘세계 시민주의적 질서’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정치적으로 구성된 세계공동체’의 이러한 이념도 세계국가로 오해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

6) 양해림(2014:428)의 칸트의 글 재인용.

다. 즉 세계기구가 세계정부의 성격을 모두 지닐 수는 없다. 유엔은 시민과 국가의 정치적인 공동체를 평화와 안전과 인권의 글로벌한 실행을 한정지었다<sup>7)</sup>”

“유엔을 비롯한 세계선진국가들은 전지구를 휘감고 있는 생태학의 문제(리우데자네이루), 인구증가의 문제(코펜하겐), 기후문제(베를린)에 관한 회의에서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전세계적 공론 장안에서 당면한 현안문제들은 주요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sup>8)</sup>”

양해림(2014:438)은 “세계시민권은 세계국가적 조직을 뜻하며, 둘째 세계시민권은 민주주의의 세계시민적 개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해림(2014:439)는 크리스토프와 아놀드 폴만의 저서를 인용하여 “세계시민권의 민주주의적 구상은 이러한 공동체의 자기통제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을 배려할 것을 기획한다. 어떤 공동체의 민주적 자기통치행위는 동일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똑같은 세계의 시민으로 배려한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적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구성원들의 시민권과 자신의 영토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세계시민권을 선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주권을 폐지하고 세계정부를 수립해야지만 진정한 세계시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든지, 지역적 연대성과 특수성을 포기해야지만 세계시민주의가 지향하는 지구적 연대성과 보편성을 확립할 수 있다든지 등과 같은 주장은 일종의 ‘흑백사고의 오류’(black-and-white fallacy)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김남준·박찬구(2015:11)]

박영숙·제롬 글렌(2020:32)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을 지칭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전례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2019년의 기후과업과 항의 시위가 그 징후라면 사회는 변화의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론자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준비하거나 국제적 협약을 준비중임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

박영숙·제롬 글렌(2020:84~85)은 “만약 2019년12월에 전세계에 감시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었고, 코로나 징후를 탐지해 WHO가 이끄는 국제비상팀이 즉시 우한으로 갔다면 지금의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WHO는 힘이 없고 국가들의 지원도 없었다.” 또한 매출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 우리 모두는 인류제앙에 관해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

7) 양해림(2014:435)의 하버마스의 글 재인용.

8) 양해림(2014:436)의 하버마스의 글 재인용.

는 글로벌 시스템에 힘을 실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중략~장기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니버(R. Niebuhr)는 일찍이 그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애국심의 윤리적 역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신랄하고 예리한 분석을 거부하는 애국심에는 윤리적 역설(ethical paradox)이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 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저열한 충성심이나 지역에 한정된 충성심(향토애) 등과 비교해보면, 그것은 고차적인 형태의 이타주의(altruism)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여타의 모든 이타적 충동의 원천임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해버리는 열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충성의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초이며, 또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토대이다. 이리하여 개인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 바로 이 때문에 개인들의 사회적 동정심만으로 인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희망은 결국 헛된 망상이 되는 것이다.”<sup>9)</sup>

최민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 유엔세계평화센터(UNWPC; United Nations World Peace Centre) 프로젝트는 한 사상(Oneness)를 강조하며, 최민자(2019:404~457)는 “세계 체제론의 관점에서 볼 때 UNWPC는 초국적 실체에 대한 인식 및 협력의 다층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초국적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함으로써 세계시민사회가 직면한 지역화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통합문제를 담아내고 있음은 물론,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민자(2019:420~427)는 UNWPC가 중국, 북한, 러시아가 접경하는 지역에 동북아 공동체를 구상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조감도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데, UNWPC본부, 세계평화의료원, 예술관, 세계테마파크, 유엔평화대학(세계민속촌), 유엔세계평화를 위한 한울림 북축제, 세계현자대회(World Wise People's Conference) 등이 구성되어 있다. 최민자의 다음 같은 말들은 그가 UNWPC를 구상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를 들여다 보게 한다.

---

9) 라인홀드 니버, 이한우 옮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2012), p.133.[김남준·박찬구 (2015:14)에서 재인용]

“UNWPC는 미래의 유엔본부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중략~그런 점에서 UNWPC는 환경·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미래 지구촌의 수도로 예정된 곳이다~중략~국제정치적 의미에서 이러한 평화지대의 설치의 전쟁억제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협력의 증진과 공동투자개발 환경을 조성해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나아가 이 지역을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이다.~중략~적절한 시기에 중국·북한·러시아 3국의 동의하에 UNWPC구역이 무비자(No-Visa)지대로 설정되고 국제 표준에 맞는 화폐통용과 관리가 이루어지면-본서 제2장3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카퍼(Copper)기반의 세계 단일화폐 ‘우리(Uri)’를 UNWPC구역에서 통화시스템으로 시험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민자의 저서의 제목인 ‘무엇이 21세기를 지배하는가-신세계 질서를 여는 여덟가지’라는 제목은 그의 이 책이 신세계 질서를 여는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NWO(New World Order)와 신세계 정부의 출현을 기대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최민자는 제1장에서 ‘한사상(Oneness)’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사상과 지구생명공동체>를 강조한 바 그가 주로 대종교의 경전인 천부경을 강조하여 설명함으로써 대종교를 활용한 종교통합운동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민자(2019:440)에서는 이러한 천부경-대종교의 천·자인 삼신일체의 삼신사상을 모든 종교와 진리의 모체가 되는 사상이라고 높이고, “21세기 ‘새로운 삶의 양식의 원형’을 함유한 가장 오래된 새 것”이라 추켜세우는 것으로 절정을 이룬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등 한국이 세계정부의 수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전 농림부장관인 허신행의 글 참고10))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기후변화 최고위과정11)과 관련되어 확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 5) 맺는 말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21세기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현대를 VUCA나 RUPT시대로 정의한다. VUCA란 Volatile(변동성),Uncertain(불확실성),Complexity(복잡성),Ambiguity(모호성)을 합칭한 것이며,RUPT는 Rapid(신속한),Unpredictable(예측불가

10) 허신행(2010):<한국은 세계정부 수도가 될 수 있다>(《한겨레신문》2010년 8월15일 기고문)

11) ‘기후변화 최고위과정’은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

한), Paradoxical(역설적인), Tangled(엉켜있는)를 합친 말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 가져다 준 큰 변화를 뉴노멀의 탄생으로 보고 언노멀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로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를 급속하게 앞당겼다고 보았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질병의 글로벌 확산은 전지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글로벌 결정을 유도하게 될 전망이다. Henry A. Kissinger(2020)나 Javier Solana(2020)는 이와 같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Mohammed Cherkaoui(2020)는 특히 헨리 키신저의 NWO 관련 발언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될수록 기후변화론자들은 이를 매우 중요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정책기조가 마련될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영란(2019):《위험사회학-위험의 프리즘:위험의 생산·분배·대응》(나눔,서울)
-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2008):《감시와 처벌》(나남)
- 고환상·권한섭·김상목 등(2020):《뉴노멀로 다가온 포스트코로나 세상》(지식플랫폼,서울)
- 김수련, 김동은, 박철현, 김민아, 심민영(2020):《포스트 코로나 사회: 팬데믹의 경험과 달라진 세계》(서울, 글항아리)
- 임승규·장두석·양석재·조관자(2020):《포스트코로나-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한빛비즈,2020)
-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2020):《세계미래보고서:2035~2055》(교보문고,과주)
- 박희재(2014):<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울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사회사상과 문화》제30집),83~120쪽.
- 샤샤 로보 지음,강희진 옮김(2020):《리얼리티 쇼크-혼돈의 세계에서 살아나는 법》(미래의 창,서울)
- 양혜림(2014):<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동서철학연구》제74호),423~450쪽.
- 김남준·박찬구(2015):<세계화 시대의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성-어떤 세계시민주의 어떤 세계시민성>(《윤리연구》105권),1~34쪽.
- 이종찬(2020):《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만든 뉴노멀-코로나 위기 이후 뉴노멀 시대의 기업 생존 전략》(서울, 북랩)
- 울리히 벡(2019):《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새물결,서울)
- 유발 하라리·재레드 다이아몬드 등(2019):《초예측》(웅진지식하우스,과주)
- 파울 놀테 지음,윤중식 옮김(2010):《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한울 도서출판,과주)
- 한상진(2008):<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 사회>(《사회와 이

- 론》2008년5월,37~72쪽.
- 한상진·올리히 백(2008):<위험사회가 여는 코스모폴리탄 전망-새로운 사회학적 상상력>(《사회비평》39권),140~155쪽
- 김용섭(2020): 《Uncontact(언컨택트)》(퍼블리온)
- Mohammed Cherkaoui(2020): Senior Researcher at .Responding to Kissinger: <The Risks of Remodeling Neoliberalism and Manipulating the Enlightenment values>(Al Jazeera Centre for Studies, 26 April, 2020)
- Henry A. Kissinger(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The Wall Street Journal》,2020.April,4)
- Javier Solana(2020):<Our post-coronavirus world will be built on what we say and do now>(《World Economic Forum》,30 Mar 2020)
- 조아라, 강운재(2016) :<위험거버넌스에서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사회사상과 문화》19권2호,93~127쪽)
- 최민자(2019): 《무엇이 21세기를 지배하는가-신세계 질서를 여는 여덟가지》(모시는 사람들, 서울)
- 파울 놀테(2010):《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한울아카데미,과주)
- 하랄트 윌러(2002):《문명의 공존》(과주,푸른 숲)
- 호세 루첸베르거·프란츠 테오 고트발트(2003),홍명희 역《지구적 사고-생태학적 식생활》(생각의 나무)
- Morteza Hashemi,<Ulrich Beck:Risk Society>(Conventry University,《Understanding Society》)